

# “붉은 말의 해 적토마처럼 힘차게 달려나가자”

## 배려·용기·끈기 있는 사람 될 터

이하윤 순천남산초등학교 학생

2026년에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언제나 먼저 인사하며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힘들어할 땐 먼저 다가가 도와주는 용기 있는 사람도 되고 싶다. 미루는 습관을 고쳐 계획대로 공부해 실력을 키우고 싶다.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도 속상해 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 끝까지 해내는 끈기를 기르고 싶다. 집에서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할머니께 고운 말을 사용하겠다고 다짐한다. 바이올린 연주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겠다. /박선옥 기자



## 새 시즌 준비 집중…가을야구 도전

이의리 KIA 선수

지난 시즌을 마친 뒤 마무리 캠프에서 동료 선수들과 함께 훈련에 임했고, 캠프가 끝난 이후에도 몸 관리와 훈련을 이어가며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비시즌에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던 벨런스와 투구 시퀀스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다가오는 2026시즌에는 팀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 다시 한 번 가을야구에 도전하겠다.

지난 시즌 동안 보내주신 팬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잊지 않고 있다. 올 한 해 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바란다. /주홍철 기자



## 현장 안전·활력 넘치는 한 해 되길

권민혁 기아오토랜드 광주 인사팀 책임

기아의 일원으로서 2026년 새해에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중심에서 더 높이 도약하길 소망한다.

개인적으로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으로 기아가 전 세계 고객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삶의 터전에서 돋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간절히 염원하는 것은 '안전'이다. 자동차 산업은 물론 모든 제조업 현장에서 모든 동료가 안전하게 귀가하는 건강한 일터가 되길 바란다. 사람 중심의 성장이 비단 이 될 때 우리 산업의 발전도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 새해에는 기아 및 모든 산업 현장에 안전과 활력이 넘치길 기원한다. /임체만 기자



## 2세 출산 예정…‘말띠 가족’ 기대

조유나 작가

2024년 광주미술상과 춘천MBC 한국 현대조각초대전 작품상을 수상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상을 함께 받게 되면서 지난해는 그간의 작품 세계를 돌아보고 초심을 찾는 데 집중했다.

“예술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안주하지 않으며,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스승들의 조언을 깊이 새기고 있다. 겸손한 태도로 오래 작업을 이어가는 조각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는 무척 특별하다. 곧 2세가 태어나기 때문이다. 엄마와 아빠도 말띠라서 재미있는 조합이 될 것 같다. /최명진 기자



## 내란 가담자 상식적 판결 나오길

장현규 마을발전소 사무처장

올해 6월3일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시민社会의 목소리가 지역 정치에 반영돼 변화를 견인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길 바란다.

2024년 12·3 내란 사태 이후 광주비상행동에서 열심히 활동했다. 주요 가담자 일부가 구형을 받긴 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

올해는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상식에 맞는 판결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올해부터라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관련 법률과 조례를 반영해 ‘속도와 효율’만을 중요시하기보다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세상이 됐으면 한다. /서형우 기자



## 방향 잃지 않는 말처럼 현장 지킬 터

김상묵 광주 서부경찰서 경위

경찰관으로 일한 지 어느덧 20년이 훌쩍 지났다. 말띠생으로서 말처럼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내가 됐다고 생각한다.

새해에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마음으로 알고 있는 원칙을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실천하는 경찰이 되고 싶다.

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순간에도 기본과 절차를 지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

후배들에게는 말보다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선배가 되고, 동료들과의 의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다. 변하는 치안환경 속에서도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 /이연상 기자



## 지역민 삶 직결된 문제들 해결 기원

김종필 광주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새해에는 우리 가족과 시민사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기원한다.

사회 역시 상식이 통하고 서로를 미워하거나 혐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 송전탑 문제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고 갈등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한다.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공정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12·3 불법 비상계엄의 주요 가담자들이 처벌 받고 내란 사태가 완전히 청산되며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쟁점들까지 함께 해소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서형우 기자



## 미용봉사 등 지속…따뜻한 사회 소원

김진숙 대한민국 1호 미용명장

올해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단 기존에 해왔던 것을 꾸준히 유지하려 한다.

그 중에서도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어르신들의 머리를 잘라 드리는 미용봉사활동과 (사)광주동구지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계속 함께하고 싶다. 미용인으로서 올바른 인성을 갖춘 후배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크다.

명장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허름한 후배들과 함께 지역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이어감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길 소망한다. /안재영 기자



## 외국인 고객 ‘신뢰받는 동반자’ 될 터

고훈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장

2026년 병오년 (丙午年)은 1978년 말띠 해에 태어난 나에게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2006년 입행 당시 품었던 다짐은 지금도 또렷이 남아 있으며, 그로부터 2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시간이 나를 성장시킨 자양분으로 남아 있다.

올해 개인적인 목표는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장으로서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 외국인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말처럼 힘차이 흔들림 없이 속도보다는 내실을, 단기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성과 종사자에게 대한 존중을 더看重하는 가치를 높여가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 /임체만 기자



## 34년 공직 마무리…‘일상 안정’ 소망

김미정 광주 북구청 토지정보과장

새해 소망은 거창한 성취보다는 ‘일상의 안정’이다. 2026년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나와 동시에 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딸아이가 각자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두렵기보다 담담하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했으면 한다.

34년의 직장 생활을 돌아보면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오래 남았다. 온전히 나로 살아갈 시간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더 잘, 더 건강하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고 싶다. /윤천웅 기자



## 상식이 통하는 2026년 기대

윤충걸 광주 동구 지산동 사과마을 주민협회장

2026년은 상식이 통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 12·3 불법 비상계엄의 여파로 2025년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다행히 성숙한 시민 의식의 힘으로 탄핵이 이뤄졌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평온을 찾아갔다. 그러나 전국민을 위협한 일당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끔찍했던 지난날을 잊은 듯 낙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올해는 달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걱정이 크다. 지역 발전과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일꾼이 뽑혔으면 한다. 우리 모두의 내일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 /안재영 기자



## 적토마 기운으로 인생 2막 박차

박영학 광주 동구 소태동 모아미래 경로당장

‘붉은 말’의 해라고 하니 삼국지 속 적토마가 떠오른다. 힘차게 달려가는 기운을 받아 올해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든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여태 해온 증심사 금해설 교육과 총장축제 등에서의 봉사활동 역시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취미 생활인 서예 활동 역시 이웃들과 계속해 나가며 꾸준히 친목을 다지고 싶다. 특히 올해 초 전시회도 예정돼 있어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다만, 이 모든 건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건강이 계속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재영 기자



謹賀新年

동행

때를 아플을 그리고 기쁠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고

건강한 삶의 동반자

풍부한 일상 경험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병원  
CHOSUN UNIVERSITY HOSPITAL

· 고객센터 1811-7474  
· 홈페이지 hosp.chosun.ac.kr

· instagram.com/chosun\_university\_hospital/  
· facebook.com/ChosunUniversityHospital